

## 대전시와 함께하는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개최 결과

대전광역시와 대전상공회의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16년 11월 30일 대전상공회의소 제1회의실에서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및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가 후원하고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이 주관하는 본 세미나는 반부패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프로젝트인 '페어플레이어클럽 (Fair Player Club)' 의 2차년도 여섯 번째 세미나로, 대전시 공기업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준법·윤리경영의 국내외 동향과 반부패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소개하고, 반부패 기업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 2차년도 첫 번째 세미나는 서울시와 함께 2016년 7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두 번째 세미나는 부산시와 함께 2016년 9월 2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세 번째 세미나는 광주시와 함께 2016년 9월 22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네 번째 세미나는 대구시와 함께 2016년 11월 11일 대구 엑스코에서, 다섯 번째 세미나는 울산시와 함께 2016년 11월 28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성공적으로 공동 주최한 바 있습니다.

대전상공회의소 박희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세미나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을 소개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각각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준법윤리경영이 강조되는 요즘, 본 세미나가 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전광역시 이현주 정무부시장은 축사에서 "본 세미나는 준법윤리경영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부패 리스크를 방지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하나되어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해 규범을 준수하고 실천하면 공정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국회의원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역동적인 청렴 문화가 우리 대전 시에 정착하고 반부패 경영이 공정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회 차원에서 반부패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임홍재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준법윤리 경영과 반부패를 위한 청렴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페어플레이어클럽이 중요한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및 반부패 국제동향 발표에서 UN, OECD, 미국 FCPA, 영국 뇌물법 등 글로벌 반부패법과 UNGC의 반부패 활동들을 설명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팀장은 ‘반부패 가이드라인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소개’ 발표에서 반부패 규범 확산에 힘입어 기업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수립이 중요해짐에 따라, 반부패 법안 대응을 위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수립·적용할 수 있는 반부패 가이드라인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고종승 감사관은 ‘대전광역시 청탁금지법 대응전략’ 발표를 통해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1위를 거둔 대전광역시의 부패 방지 청렴시책을 공유하는 한편, 최근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응하는 대전광역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Y 한영 백승재 전무는 ‘청탁금지법 관련 국내기업 대응방안’ 청탁금지법 시행 후 사회적 변화와 함께 권익위·법무부·법제처 등 ‘관계부처 합동해석지원 테스크포스 팀(TF)’의 해석 사례를 기반으로 청탁금지법의 상황 별 적용 기준을 알기 쉽게 제시했습니다.

준법윤리경영의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기업 사례 발표에서는 백경목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지속가능경영담당 차장이 한국수자원공사의 CSR 활동 및 준법윤리 경영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자사의 전사적 내부청렴도 향상대책과 윤리경영을 조직문화에 내재화하기 위한 수자원공사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지멘스 박종근 윤리경영실장은 최고경영진의 의지, 사내 업무 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준법 리스크 평가, 임직원 내부고발 채널 운영 등 윤리경영 통합체계를 구축한 지멘스의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강주현 상임대표는 페어플레이어클럽을 소개하고 반부패 서약을 안내하면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페어 플레이 반부패 서약을 통한 기업 문화 개선의 가능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동종기업은 물론 이종 업종 기업들간에도 공동노력 (Collective Action)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은 앞으로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대전 인천 등의 광역 자치단체와 지역상공회의소와의 민관협력 증진을 통해서, 전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기업 대상으로 반부패와 준법·윤리경영 중요성을 전파하여 기업의 부패 리스크 방지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